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마희영 *

정진향 **

* 주저자,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e-mail: hyy7026@dongduk.ac.kr

** 교신저자, 여주대학교 세무정보학과, e-mail: 2004146@yit.ac.kr

I. 서론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다. 회계정보는 투자자나 채권자와 같은 회계정보이용자들이 투자나 신용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있고, 회계정보가 기업의 내재가치에 대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을 때 가치관련성(value relevance)을 갖는다.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회계정보의 질이 높아질 때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내부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특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이 많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재무보고 과정에 보다 상세히 관여하는 등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인력의 특성은 내부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 내부회계관리부서 중 회계부서 인력의 규모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여부로 측정하였다.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Ohlson(1995)를 변형하여 사용한다. Ohlson은 순자산과 순이익 같은 회계정보와 기타 비회계정보에 의한 기업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표본은 내부회계관리 운영인력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표본 기업-연도(firm-year)로 총 4,432개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의 규모와 가치관련성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내부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수가 많을수록 가치관련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을수록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회계부서의 인력규모와 가치관련성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때 가치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여부와 가치관련성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즉 내부회계관리 업무담당자가 회계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때 가치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의 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이 있을 때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제도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회계이익의 질을 검증하는데 있지만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공헌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당국이나 투자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II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제III장에서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의 특성이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제I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 제V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1. 선행연구 검토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으로,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기준, 문단 8과 9).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한시적으로 의무화하였다가 200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법제화하였다. 2005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기준」과 「적용해설서」를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초기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으로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김효진과 김은정(2006)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익조정 정도를 분석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조정을 적게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기업의 이익조정이 감소함을 보였다. 조

현우와 유경연(2006)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후연도의 재량적발생액이 이전연도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였다. 이명곤 등(2007)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에 취약점이 있는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취약점이 없는 기업보다 더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정교 등(2009)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개선된 기업은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개선연도에 발생액의 질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절차상의 오류를 감소 시킴으로써 발생액의 질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손성규와 정기위(2009)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게 회계이익의 질이 대체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2년 사업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을수록 기업 활동의 내부 통제 문제들을 상세히 다루게 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홍창목과 정진향, 2012). 내부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인적자원의 특성은 외부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김동영, 2015).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에 관한 정보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공시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Choi et al.(2013)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이익조정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오류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정진향과 마희영(2012)은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이 많을수록, 내부회계관리인력 중 공인회계사가 있을 때 실제이익조정이 감소함을 보여 회계이익의 질이

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에 다음 표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을 공시한다.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 담당인력의 평균 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위원회)	3	3	-	-	38
이사회	9	9	-	-	30
회계처리부서	61	61	2	3.28%	128
전산운영부서	17	7	-	-	103
자금운영부서	62	34	-	-	111

제고된다고 해석하였다. 유혜영 등(2012)은 내부회계담당인력의 수가 전체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력의 평균경력월수가 증가할수록 회계오류발생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담당인력이 충분할 때 적시성 있는 검토 등으로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준일 등(2010)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이 많을수록 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이 많은 기업이 감사품질에도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회계정보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Ohlson(1995)이 회계정보와 기업가치를 연결시키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이후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하는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수행되었다(회계정보유용성, 2003).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주가설명력의 크기로 측정하고 순자산 정보와 순이익의 정보가 주가에 미치는 상대적인 크기를 주로 비교하였는데, 회계정보 가치관련성의 시계열적 변화, 이익의 질적 특성,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등 기업의 특성별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차이분석 등을 검증하였다. Hayn(1995)은 손실기업이 이익기업에 비해 주가와 이익 간의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Barth et al.(1998)은 부도기업을 표본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부실기업은 수익가치보다 청산가치를 더 중시하므로 순이익보다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이 더 크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Collins et al.(1997)은 40년간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과 순자산의 결합 가치관련성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순이익 정보의 가치관련성은 감소하고 순자산 정보의 가치관련성이 증가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연구로 신승표(1996)는 순자산과 순이익 정보가 주가와 양(+)의 관계임을 보였고, 김경순과 조장연(2011)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재량적발생액의 절댓값이 작을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하여 공시의 질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회계정보를 주가에 반영하는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용(2014)는 발생액의 질이 미래현금흐름을 잘 반영할수록 그 발생액을 포함하는 회계이익이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순자산의 기업가치 설명력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정옥(2013)은 계속감사기간을 감사품질에 대한 대용치로 보고 분석한 결과,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회계이익과 순자산의 상대적인 가치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문호와 안성희(2015)는 높은 명성과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BIG4 감사인에게서 감사받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김영준 등(2015)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간 한국 자본시장의 가치관련성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치관련성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를 이해관계자들의 재무보고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한국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 등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2. 가설 설정

2000년 초반에 발생한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하여 감독당국은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였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재무보고와 관련된 오류나 부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재무정보에 포함된 중요한 왜곡사항을 적시에 발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의 재무보고과정을 통제대상으로 하며(이호영 등, 2011), 기업이 스스로 재무보고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이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체적으로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김효진과 김은정, 2006; 조현우와 유경연, 2006; 이명곤 등, 2007; 김정교 등, 2009; 손성규와 정기위, 2009).

회계정보의 이용목적은 투자자나 채권자와 같은 회계정보이용자들이 투자나 신용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회계정보가 기업의 내재가치에 대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을 때 가치관련성(value relevance)을 갖는데, 현 주가와 독립적으로 회계정보가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데 유용성을 갖게 된다(회계정보유용성, 2003).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Ohlson모형은 순자산 및 순이익과 같은 회계정보와 기타 비회계정보에 의한 기업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해당 모형에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주가설명력의 크기로 측정하는데, 회계정보의 질이 높을 때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증가하여 회계이익의 질이 높아진다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 자체보다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 특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즉 재무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인력의 수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영, 2015). 내부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을수록 기업의 전체적인 재무보고 과정에

상세히 관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을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무보고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재무보고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 특성 중 그 규모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의 규모가 클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높아질 것이다.

Ge and McVay(2005)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원인으로 ‘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lack of qualified accounting personnel)’ 이라고 하였다²⁾. 최종원과 유혜영(2010)은 회계·공시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향후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회계·공시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가치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이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많을수록 내부회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 특성 중 전문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계부서의 인원수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회계부서의 인력이 많을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부회계담당 인력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공시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중 공인회계사가 있다면 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를 실행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 특성 중 전문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인회계사의 수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한다.

2) 문두철 등(2012),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력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감리 지적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13(4), 279-308. 재인용

가설 3 :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 중 공인회계사의 수가 많을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높아질 것이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Ohlson모형(1995)은 배당할인모형에 회계의 순증관계를 결합하여 순자산 장부가치와 미래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종속변수인 P는 (t+1)년도 3월 말 보통주 증가이고, 독립변수인 BV는 주당순자산, E는 주당순이익 값이다.

$$P_{it} = \gamma_0 + \gamma_1 BV_{it} + \gamma_2 E_{it} + \epsilon_{it}$$

P = t+1년도 3월 말 보통주 증가

BV = t년도 주당순자산

E = t년도 주당순이익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Ohlson모형을 변형하여 식 (1)에서 식 (6)과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식 (1)과 식 (2)는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의 규모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가설 1을 검증한다. 식 (3)과 식 (4)는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인력의 규모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가설 2를 검증한다. 식 (5)와 식 (6)은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 중 공인회계사의 수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가설 3을 검증한다. 각 모형에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은 주가설명력의 크기인 결정계수의 값(R^2)으로 측정하는데,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의 특성을 포함한 식 (1)에서 식 (6)의 결정계수 값이 Ohlson 모형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Vuong test를 실시한다.

식 (1), 식 (3), 식 (5)에서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IC, ACC, CPA의 회귀계수인 β_3 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IC는 내부회계

관리·운영조직 인력의 수를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고, ACC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인력의 수를 자연로그로 변환한 값이다. CPA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³⁾를 나타낸다.

식 (2), 식 (4), 식 (6)에서 회계변수인 순자산(BV) 및 순이익(E)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특성과의 상호작용효과변수인 $BV \times HIGH_IC$, $E \times HIGH_IC$, $BV \times HIGH_ACC$, $E \times HIGH_ACC$, $BV \times CPA$, $E \times CPA$ 를 포함한 모형으로 α_4 와 α_5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HIGH_IC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원수가 평균값보다 크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고, HIGH_ACC는 회계부서 인원수가 평균값보다 크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이익의 성격과 연도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손실여부(NEG)와 연도더미(YEAR)를 포함하였다. NEG는 주당순이익(E)이 음(-)의 값이면 E,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P_{it} = \beta_0 + \beta_1 BV_{it} + \beta_2 E_{it} + \beta_3 IC_{it} + \beta_4 NEG_{it} + \sum YEAR + \varepsilon_{it} \dots \dots \dots \text{식 (1)}$$

$$P_{it} = \alpha_0 + \alpha_1 BV_{it} + \alpha_2 E_{it} + \alpha_3 IC_{it} + \alpha_4 BV_{it} \times HIGH_IC_{it} + \alpha_5 E_{it} \times HIGH_IC_{it} + \alpha_6 NEG_{it} + \sum YEAR + \varepsilon_{it} \dots \dots \dots \text{식 (2)}$$

$$P_{it} = \beta_0 + \beta_1 BV_{it} + \beta_2 E_{it} + \beta_3 ACC_{it} + \beta_4 NEG_{it} + \sum YEAR + \varepsilon_{it} \dots \dots \dots \text{식 (3)}$$

$$P_{it} = \alpha_0 + \alpha_1 BV_{it} + \alpha_2 E_{it} + \alpha_3 ACC_{it} + \alpha_4 BV_{it} \times HIGH_ACC_{it} + \alpha_5 E_{it} \times HIGH_ACC_{it} + \alpha_6 NEG_{it} + \sum YEAR + \varepsilon_{it} \dots \dots \dots \text{식 (4)}$$

$$P_{it} = \beta_0 + \beta_1 BV_{it} + \beta_2 E_{it} + \beta_3 CPA_{it} + \beta_4 NEG_{it} + \sum YEAR + \varepsilon_{it} \dots \dots \dots \text{식 (5)}$$

$$P_{it} = \alpha_0 + \alpha_1 BV_{it} + \alpha_2 E_{it} + \alpha_3 CPA_{it} + \alpha_4 BV_{it} \times CPA_{it} + \alpha_5 E_{it} \times CPA_{it} + \alpha_6 NEG_{it} + \sum YEAR + \varepsilon_{it} \dots \dots \dots \text{식 (6)}$$

P = t+1년도의 3월말 주가⁴⁾

BV = 주당순자산

E = 주당순이익

NEG = E가 음(-)이면 E, 아니면 0인 더미변수

3) CPA변수는 기술통계량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기업은 통상 1명~2명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 4명이기 때문에 자연로그로 변환하지 않았다.

4) P(주가), BV(주당순자산), E(주당순이익) 값의 단위는 천 원이다.

IC =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규모의 자연로그 값

HIGH_IC =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원수가 평균값보다 크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ACC =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인력규모의 자연로그 값

HIGH_ACC =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인원수가 평균값보다 크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CPA =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중 공인회계사의 수

YEAR = 연도더미

2. 표본 선정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표본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 (2) 12월 결산법인
- (3)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
-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
- (5) NICE평가정보(주)의 KISVALUE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재무자료 및 추가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업

조건 (1), (2) 및 (3)은 자료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결산 월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고, 금융업은 재무제표 양식, 계정과목 등이 상이하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조건 (4)는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수 및 회계부서⁵⁾에서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조건 (5)는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와 추가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추가적으로 이상치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이용되는 각 변수의 상·하위 1%를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의 수는 기업-연도(firm-year)로 총 4,432개이다.

<표 1>은 최종 표본을 연도별 · 산업별로 나타낸 것이다. 2004년 435개, 2005년 461개,

5) 회계처리부서와 자금운영부서가 구분된 경우 합하여 산정하였다.

2006년 474개, 2007년 491개, 2008년 484개, 2009년 496개, 2010년 519개, 2011년 536개, 2012년 536개로 연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표 1> 연도별 표본 수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표본 수	435	461	474	491	484	496	519	536	536	4,432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P는 보통주 증가를 나타내는데 평균은 26.328이다. 회계정보를 나타내는 BV와 E의 평균은 27.036, 2.372으로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고 있다. 표본의 약 20% 정도가 당기순손실(NEG)을 보고하였다.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을 나타내는 IC, ACC의 평균 2.328과 1.876으로 회계 부서 인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 운영인력 중 공인회계사의 수의 평균은 0.203이데, 표본의 75% 이상은 공인회계사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초통계량(N=4,432)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25%	중위수	75%	최댓값
P	26.328	49.690	0.285	2.630	8.305	26.750	568.000
BV	27.036	46.778	0.268	3.459	9.660	29.698	436.442
E	2.372	5.392	-10.130	0.079	0.627	2.512	47.598
IC	2.328	0.758	0.693	1.792	2.303	2.773	4.927
ACC	1.876	0.795	0.000	1.386	1.792	2.303	4.663
CPA	0.203	0.632	0.000	0.000	0.000	0.000	4.000
NEG	-0.205	0.876	-10.130	0.000	0.000	0.000	0.000

주1)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 = t+1년도의 3월말 증가

BV = 주당순자산
 E = 주당순이익
 IC =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규모의 자연로그 값
 ACC =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인력규모의 자연로그 값
 CPA =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중 공인회계사의 수
 NEG = E가 음(-)이면 E, 아니면 0인 더미변수

<표 3>은 주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주가 P는 회계정보인 BV 및 E와 매우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의 인력의 특성을 나타내는 IC, ACC, CPA와도 매우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인력의 규모가 크거나 인력의 전문성이 높을 때 연구가설과 같이 가치관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3> Pearson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명	P	BV	E	IC	ACC	CPA	NEG
P	1.000						
BV	0.700	1.000					
E	0.730	0.696	1.000				
IC	0.256	0.130	0.185	1.000			
ACC	0.264	0.144	0.189	0.905	1.000		
CPA	0.209	0.104	0.138	0.276	0.299	1.000	
NEG	0.036	-0.023	0.274	0.027	0.038	0.008	1.000

주1) 변수에 관한 설명은 <표 2> 참조

주2) 상관관계 분석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2. 회귀분석 결과⁶⁾

우선 <표 4>는 Ohlson모형(1995)에 따라 순자산과 순이익으로 측정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로, 선행연구와 같이 BV와 E의 회귀계수 값은 0.319, 4.860로 모두 1%

6) studentized 잔차값이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경우는 표본에서 제거하였다.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4> Ohlson모형(1995)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회귀계수	t-value
Intercept	-1.774	-2.61***
BV	0.319	40.40***
E	4.860	61.78***
NEG	-5.636	-20.47***
YEAR	포함	
F Value	1,562.11***	
Adj R-Sq	80.22	
최대 VIF	2.169	
표본 수	4,234	

주1) 변수에 관한 설명은 <표 2> 참조

주2)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5>는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규모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이 기본모형이고 모형 2는 기본모형에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규모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F값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지므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최대 VIF 값이 1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심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의 규모를 나타내는 IC의 회귀계수 값이 4.442, 1.987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고, 회계정보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BV \times HIGH_IC$, $E \times HIGH_IC$ 의 회귀계수 값 또한 0.132과 1.300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규모가 클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에서 Ohlson모형의 설명력이 80.22이고,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규모가 포함될 경우 <표 5>와 같이 80.39과 82.3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설명력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Vuong 's Z값을 구한 결과 두 모형 모두 6.787, 6.451로 1% 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져 추가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규모가 클수록 효과적인 모니터링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증가하고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또한 제고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규모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Intercept	-12.007	-12.89***	-6.442	-6.67***
BV	0.303	39.34***	0.288	32.26***
E	4.632	59.33***	3.319	28.18***
IC	4.442	15.68***	1.987	6.46***
BV×HIGH_IC			0.132	9.68***
E×HIGH_IC			1.300	9.18***
NEG	-5.555	-20.61***	-4.288	-15.88***
YEAR	포함		포함	
F Value	1,447.46***		1,408.63***	
Adj R-Sq	80.39		82.32	
최대 VIF	2.237		5.615	
표본 수	4,235		4,234	
Vuong' s Z	6.787		6.451	

주1)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V = 주당순자산, E = 주당순이익, IC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규모의 자연로그 값,
HIGH_IC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원수가 평균값보다 크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NEG =
E가 음(-)이면 E, 아니면 0인 더미변수, YEAR = 연도더미

주2)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표 6>은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인력규모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3이 기본모형이고 모형 4는

기본모형에 회계부서 인력규모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F값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지므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최대 VIF 값이 1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6〉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인력규모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3		모형 4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Intercept	-10.189	-12.18***	-7.304	-8.55***
BV	0.309	40.36***	0.282	28.99***
E	4.656	59.90***	3.701	32.63***
IC_ACC	4.378	16.20***	2.836	9.70***
BV×HIGH_ACC			0.055	3.98***
E×HIGH_ACC			1.429	10.24***
NEG	-5.478	-20.35***	-5.224	19.43***
YEAR	포함		포함	
F Value	1,498.65***		1,314.62***	
Adj R-Sq	80.94		81.30	
최대 VIF	2.23		4.740	
표본 수	4,234		4,230	
Vuong' s Z	7.130		6.633	

주1)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V = 주당순자산, E = 주당순이익, ACC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인력규모의 자연로그 값, HIGH_ACC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인원수가 평균값보다 크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NEG = E가 음(-)이면 E, 아니면 0인 더미변수, YEAR = 연도더미

주2)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관심변수인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운영인력의 규모를 나타내는 ACC의 회귀계수 값이 4.378, 2.836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고, 회계정보와의 상호작용

용효과를 나타내는 $BV \times HIGH_ACC$, $E \times HIGH_ACC$ 의 회귀계수 값 또한 0.055와 1.42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회계부서 인력규모가 클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에서 Ohlson모형의 설명력이 80.22이고,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회계부서 인력규모가 포함될 경우 <표 6>와 같이 80.94와 81.30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설명력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Vuong 's Z값을 구한 결과 각각 7.130과 6.633으로 1% 수준에서 유의성을 갖기 때문에 추가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2을 지지하는 결과로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회계부서 인력규모가 클수록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은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이 보유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이 기본모형이고 모형 2는 기본모형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이다. 두 모형의 F값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지므로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최대 VIF 값이 1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심변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력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를 나타내는 CPA의 회귀계수는 5.935, 4.087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회계정보와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변수 중 순자산정보인 $BV \times CPA$ 의 회귀계수만 0.029로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중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에서 Ohlson모형의 설명력이 80.22이고,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가 포함될 경우 <표 7>와 같이 80.62와 80.37로 증가하였다. 추가설명력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Vuong 's Z값을 구한 결과 모형 5의 경우 5.124, 모형 6은 4.428로 1%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3을 지지하는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전문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많이 보유할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아지고 전문성이 있을 때,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또한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중 공인회계사의 수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모형 5		모형 6	
	회귀계수	t-value	회귀계수	t-value
Intercept	-2.243	-3.36***	-1.963	-2.92***
BV	0.303	39.06***	0.302	37.03***
E	4.771	61.76***	4.689	55.39***
CPA	5.935	17.17***	4.087	7.92***
BV×CPA			0.029	2.31**
E×CPA			0.121	1.38**
NEG	-5.724	-21.31***	-5.644	-20.82
YEAR	포함		포함	
F Value	1,467.58***		1,239.25***	
Adj R-Sq	80.62		80.37	
최대 VIF	2.174		3.658	
표본 수	4,232		4,235	
Vuong' s Z	5.124		4.428	

주1)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V = 주당순자산, E = 주당순이익, CPA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 NEG = E가 음(-)이면 E, 아니면 0인 더미변수, YEAR = 연도더미

주2)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V. 결론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인력의 특성은 내부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와 인력의 전문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인원수와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내부회계제도에 관한 정보가 공시된 2004년부터 2012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실증분석결과, 내부회계 담당인력이 많을수록,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중 회계부서의 인력이 많을수록, 운영인력 중 공인회계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을수록,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독당국이나 회계정보이용자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유추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영(2015), ‘기업사회적책임의 건전성과 경제발전기여도가 내부회계담당인력 수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9(5), 203-228.
- 김정교, 유순미, 김현진(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발생액의 질’, 회계저널, 18(4), 33-64.
- 김효진, 김정은(200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협연구, 54, 176-204.
- 유혜영, 이호영, 채수준(20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특성이 회계오류발생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1(6), 1347-1373.
- 정진향, 마희영(2012), ‘내부회계관리 운영인력의 특성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19(4), 101-117.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2012),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이명곤, 장석진, 이규진(2011), ‘실제이익조정과 경영자 이익예측 정확성’, 회계저널, 20(1), 1-30.
- 조현우, 유경연(2006),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계와 감사연구, 44, 119-144.
- 손성규, 정기위(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회계오류발생에 미친 영향’, 회계저널, 18(2), 221-249.

- 홍창목, 정진향(2012),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적투자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1(5), 1157-1196.
- 이준일, 최선화, 최종학(20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와 감사보수와의 관계', *회계와 감사연구*, 51, 191-224.
- 권수영, 김문철, 손성규, 최관, 한봉희(2003), '회계정보 유용성', 제1판, 신영사.
- 이세용(2014), '발생액의 질이 회계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5(1), 251-277.
- 김영준, 이준일, 오승빈(2015), '한국 자본시장에서 가치관련성의 변화',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57(1), 85-123.
- 황문호, 안성희(2015), '차별적 감사수요에 따른 Big 4 감사인의 가치관련성', *대한경영학회지*, 28(1), 73-92.
- 김경순, 조장연(2011),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결정요인', *회계학연구*, 36(4), 169-209.
- 신승묘(1996), '주식가치평가에 있어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1(4), 21-46.
- 문두철, 박우진, 이상일(2012),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인력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감리지적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13(4), 279-308.
- 최종원, 유혜영(2010), '기업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의 보유가 회계정보의 질과 기업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52, 93-120.
- 문현주(2011), '이익지속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GAAP 대 IFRS', *세무와 회계저널*, 12(4), 45-68.
- 유용근, 차승민(2014),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및 경제적 효과',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 Barth, M., W. Landsman, and M. Lang(2008),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 467-498.
- Choi, J. H., S. Choi, C. Hogan, and J. Lee(2013).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n the Disclosure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32(4), 169-199.
- Ohlson, J.(1995), 'Earnings, Book Value, and Dividends in Equity Valu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 661-687.